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김연실¹ · 이윤정² · 박정애¹

¹두원공과대학교 부교수, ²가톨릭꽃동네대학교 부교수

The Influence of Clinical Competency and Confidence in Essential Nursing Skill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im, Youn-Sil¹ · Lee, Yun-Jeong² · Park, Jung-Ae¹

¹Associate Professor, Doowon Technical University, Anseong, Republic of Korea; ²Associate Professor, Catholic Kkotongnae University, Cheongju,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ly to August, 2022. The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266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located in A and C citie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 24.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clinical competency was 4.05±0.59 (out of 5), confidence in essential nursing skill was 3.52±0.64 (out of 5),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as 4.11±0.52 (out of 5).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confidence in essential nursing skills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clinical competency and grade, which explained 30% of nursing professionalis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methods to improve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ism; Nursing; Skills; Nursing student

서론

1. 연구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 또는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1] 간호사가 확고한 간호전문직

관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므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중요하다[2].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3] 미래의 간호를 주도해 갈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주요어: 임상수행능력, 전문직관, 간호, 술기, 간호대학생

* 본 연구는 두원공과대학교 2022 학년도 학술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IRB 승인기관 및 번호: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IRB No: 제2-7008080-A-N-01호-202106-HR-001-01-01]

Corresponding author: Lee, Yun-Jeong (<https://orcid.org/0000-0001-5167-4839>)

Associate Professor, Catholic Kkotongnae University, Cheongju-si, Chungcheongbuk-do 28211, Republic of Korea

Tel: +82-43-270-0170 Fax: +82-43-270-0103 E-mail: leeyj@kkot.ac.kr

Received: 18 February 2023 Revised: 7 May 2023 Accepted: 10 May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을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긍정적인 전문직관이 형성된 간호대학생은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간호전문직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4], 자신 있게 간호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5].

현대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대상자의 의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 또한 광범위해졌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요구되면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에서 다양한 환자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능력이다. 임상수행능력이 미흡하면 간호사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겨 현장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중 핵심간호술은 어떤 의료현장에서든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술로 간호사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 판단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인 임상수행능력의 기초가 된다[7].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 교육은 이론과 교내실습 등을 통해 반복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대상자에게 직접 간호수행 시에는 핵심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저하되어 간호사의 실무적용을 방해하거나 이직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술기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교육적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5].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 및 술기를 임상현장에 직접 적용 및 응용하면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고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9],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해 임상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간호술을 임상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0]. 그러나 최근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실습학생의 임상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상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술기 실습보다는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시간이 많아져 현장 실무능력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11]. 각 대학에서는 시뮬레이션실습, 가상현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임상실습 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의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실정이다[12].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변화된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은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4], 전공만족, 임상실습환경, 학생만족, 의사간호사 협력에 대한 태도[13], 셀프리더십, 실습소속감[11]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서 임상수행능력[4,10,14]을 제시하고 있고 임상수행능력 자신감[15],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5]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으로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함께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성공적인 간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및 교육적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정도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임상실습 커리큘럼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안성시 및 청주시에 위치한 2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 4학년 학생 2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통해 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안내하고, 동의서에 체크하여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적정 표본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인의 수 15개일 경우 최소 표본 수는 199명이었다[16]. 탈락을 고려하여 270부를 배부하였고, 잘못 표기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4부를 제외하고 266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탈락률은 1.5%였다.

3. 연구도구

1)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교육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 판단력 등을 간호실무 상황에서 능숙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Lee 등[17]이 개발하고 Choi[18]가 수정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Kang과 Jeon[19] 도구를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활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간호과정(8문항), 간호기술(12문항), 교육 및 협력관계(5문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3문항), 전문직 발전(8문항)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잘 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과 Jeon[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8$ 이었다.

2)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20가지 핵심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각 술기에 대해 '매우 자신 있다' 5점, '전혀 자신 없다' 1점으로 된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간호술에 대해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 였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이 개발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요인분석을 통해 18문항으로 수정·보완한 Han 등[21]의 도구를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5개 하위영역-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실무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21]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7$ 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승인(제2-7008080-A-N-01호-202106-HR-001-01-01)을 받아 진행되었다. 교과목별로 실습 전 예비교육과 실습 후 집담회에서 핵심간호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임상실습 교육 방법 및 임상실습 시수가 유사한 2개 간호대학의 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 수집된 자료의 활용 범위 및 언제든 참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연구자가 온라인을 통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경우 설문지 작성 전에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참여자 모두의 자료는 암호화되어 처리되고, 연구결과 발표 후 3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것을 명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암호화한 후 보관하였다. 설문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으며,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기술통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의 영향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5.67±6.49세였으며, 25세 이하가 199명으로 74.8%였다. 여학생 82.7%, 남학생 17.3%가 응답하였다. 3학년이 59.0%였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69.9%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4.05±0.59(5점 만점),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3.52±0.64(5점 만점), 간호전문직관은 4.11±0.52(5점 만점)로 나타났다(Table 2). 임상수행능력의 하위변인 중에서 전문직 발전(4.29±0.5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서는 간호의 전문성(4.36±0.59), 전문직 자아개념(4.35±0.56)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66)

Variables	Characteristics	M±SD or n (%)
Age (yr)		25.67±6.49
	≤25	199 (74.8)
	>25	67 (25.2)
Sex	Male	46 (17.3)
	Female	220 (82.7)
Grade	3 rd grade	157 (59.0)
	4 th grade	109 (41.0)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186 (69.9)
	Moderate	78 (29.3)
	Dissatisfied	2 (0.8)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66)

Variables	M±SD	Range	Min	Max
Clinical competency	4.05±0.59	1-5	2.22	5.00
Nursing process	3.89±0.65		2.00	5.00
Nursing skill	4.02±0.67		2.08	5.00
Nursing teaching/Collaboration	3.94±0.68		2.00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4.12±0.70		2.00	5.00
Professional development	4.29±0.58		2.00	5.00
Confidence in essential nursing skills	3.52±0.64	1-5	1.85	5.00
Nursing professionalism	4.11±0.52	1-5	2.53	5.00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35±0.56		2.33	5.00
Social awareness	3.57±0.87		1.0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36±0.59		2.67	5.00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4.28±0.69		2.00	5.00
Creativity in nursing	3.99±1.36		1.00	5.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F=17.50, p<.00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보통인 학생보다 자신의 임상수행능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성별($t=3.15, p=.002$), 학년($t=4.99, p<.000$)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높게 나타났고 3학년에 비해 4학년이 핵심간호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학년($t=-1.99, p=.047$)과 전공만족도($F=13.09, p<.0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간호전문직관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r=.50, p<.000$) 및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r=.31, p<.000$)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도 정적 상관관계($r=.44,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Table 3. Differences of Variables by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66)

Variables	CC	t/F (p)	CENS	t/F (p)	NP	t/F (p)
	M±SD		M±SD		M±SD	
Sex		1.41 (.157)		3.15 (.002)		0.80 (.423)
Male	4.16±0.62		3.78±0.65		4.17±0.56	
Female	4.02±0.59		3.46±0.62		4.10±0.51	
Age (years)		0.19 (.848)		-1.62 (.107)		-0.59 (.555)
≤25	4.05+0.62		3.48+0.64		4.08+0.53	
>25	4.04+0.52		3.62+0.61		4.12+0.47	
Grade		0.19 (.842)		-4.99 (.000)		-1.99 (.047)
3 rd	4.05±0.63		3.36±0.61		4.06±0.53	
4 th	4.04±0.54		3.74±0.61		4.19±0.50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17.50 (.000)		2.82 (.061)		13.09 (.000)
Satisfied ^a	4.18±0.56	a>b	3.57±0.65		4.21±0.49	a>b
Moderate ^b	3.74±0.55		3.37±0.58		3.87±0.51	
Dissatisfied ^c	3.83±0.67		3.75±0.92		3.89±0.42	

*M=mean; SD=standard deviation; CC=Clinical competency; CENS=Confidence in essential nursing skills, NP=Nursing professionalism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66)

Variables	CC	CENS	NP
	r (p)		
Clinical competency	1		
Confidence in essential nursing skills	.44 (<.000)	1	
Nursing professionalism	.50 (<.000)	.31 (<.000)	1

*CC=Clinical competency; CENS=Confidence in essential nursing skills, NP=Nursing professionalism

기 위해 독립변수 중에서 명목변수인 학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공선성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변수들의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범위는 1.000~1.133으로 기준치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Durbin-Watson 값은 2.378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 값은 1.0으로 0.1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상수행능력($\beta=.54, p<.000$), 학년($\beta=.10, p=.050$)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30%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5점을 기준으로 4.05점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N=266)

Variables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ant)	2.05	0.20		10.33	.000		
Clinical competency	0.47	.045	.54	10.46	.000	1.000	1.000
Grade	0.11	.054	.10	1.95	.050	1.000	1.000

$R^2=.30$, Adjusted $R^2=.30$, $F=56.40$, $p<.001$

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probability valu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이 어려웠던 COVID-19 감염병 시대에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확인한 Kim 등[12]의 연구에서 온라인실습으로 임상실습을 대체한 3학년 학생의 평균 3.92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임상수행능력의 하부영역에서는 전문직 발전영역이 4.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간호과정으로 3.8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 등[1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과정영역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간호과정의 경우 교과목에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학습하였지만, 막상 실제 임상실습에서 배운 것을 환자 간호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임상실습 여건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Kim 등[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공과정에 대한 동기부여[22]와 전문직업인으로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5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i[23]의 연구에서 3.73점,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 등[5]의 연구에서 3.71점, COVID-19로 온라인 중심 실습 교육을 받은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Cha 등[24]의 3.72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인 3,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저학년 때는 COVID-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교내실습이 다양한 온라인 대체수업으로 이루어져 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이었다. 3, 4학년이 되어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교내 대면 실습 기회의 부족이 핵심간호술기 자신감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확대된 연구대상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성별과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보다 4학년이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이 많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 Cha 등[24]의 연구와도 맥락이 일치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며 반복 학습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핵심간호술 자신감은 임상수행능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여러 연구[25]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심간호술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5점 척도에서 4.11점으로 나타났

다. 이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조사한 Lee 등[26]의 연구 3.56점과 졸업 학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i 등[5]의 3.86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는 전문적 자아개념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인식 영역이 3.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사가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Ko[2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단체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학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학년은 아직 전공과목과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임상실습과 이론과의 연계성을 통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저학년보다는 높아질 수 있으며[28] 고학년에 간호관리학 교과를 통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은 물론 간호전문직관에도 중요한 요인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Han[28]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공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10,14]와 일치하며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나타낸 Seo 등[29]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자신있게 간호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5]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상수행능력과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였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임상수행능력으로 나타난 Jang[10]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임상수행능력으로 나타난 Jang[3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 다른 영향요인인 학년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Han[28]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이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의 바람직한 정립을 위해 학년별 맞춤형 간호전문직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임

임상수행능력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은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본간호술 습득을 위해 무엇보다 교내실습 또는 임상실습에서 이뤄지는 핵심간호술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30], 임상현장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처럼 학년이 간호전문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저학년에서는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고학년에서는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이 건전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의 강화와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정의 노력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또 다른 영향요인을 찾는 반복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일반적 특성인 학년이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학년별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이론 및 실습교육지도를 강화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수한 간호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임상수행능력과 함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회귀분석 결과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내실습 또는 임상실습에서 이뤄지는 핵심간호술을 보다 쉽게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전문직관의 바람직한 정립을 위해 학년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ORCID

Kim, Youn-Sil

<https://orcid.org/0000-0003-4967-1692>

Lee, Yun-Jeong

<https://orcid.org/0000-0001-5167-4839>

Park, Jung-Ae

<https://orcid.org/0000-0002-0216-7133>

REFERENCES

-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00.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Kwon YM, Yeun EJ.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7; 13(3):285-92.
- Jung SH. The ethical attitude related to DNR and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cheon: Kwandong University. 2007.
-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3):73-9.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Choi GH, Hong MJ, Kwon SH.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fundamental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9;26(2):107-16. <https://doi.org/10.7739/jkafn.2019.26.2.107>
- Park JA, Kim BJ.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9;39(6):840-50. <https://doi.org/10.4040/jkan.2009.39.6.840>
- Barrett C, Myrick F.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8;27(2):364-71.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Kim YH, Hwang SY, Lee AY.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 37-46.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37>
- Park MY, Kim SY.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0;6(1):23-35.
- Jang HJ.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2020; 37(3):635-48. <https://doi.org/10.12925/jkocs.2020.37.3.635>
- Kim CH, Kim JY.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5-16.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5>
- Kim YS, Park JY, Lee YJ. Comparisons among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online and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1;5(4):13-22. <https://doi.org/10.34089/jknr.2021.5.4.13>
- Lee EK, Ji EJ.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6;23(2):126-35. <https://doi.org/10.7739/jkafn.2016.23.2.126>

14. Kim GY.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2;12(2):63-71. <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2.063>.
15. Bang KS, Chae SM, Yu JY, Song MK, Lee JH. Comparis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nursing competence, and practicum satisfac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with and without pediatric nursing clinical preceptorship.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396-404.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396>
16.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2):175-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17. Lee WH, Kim CJ, Yoo JS, Hur HK, Kim KS, Lim S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onsei Nursing*, 1991;13:17-29.
18. Choi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5.
19. Kang SJ, Jeon EY.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5;18(3):151-78. <https://doi.org/10.36907/krivet.2015.18.3.151>
20. Kim SO, Kang BH.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learning self-efficacy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their self-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8):172-82. <https://doi.org/10.5762/KAIS.2016.17.8.172>
21.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3-9.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22. Cho JA, Kim JS.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4):587-95. <https://doi.org/10.5762/KAIS.2016.17.4.587>
23. Choi SK. Convergenc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lower-class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1;12(4):349-58. <https://doi.org/10.15207/JKCS.2021.12.4.349>
24. Cha HG, Kim HS. Factors affecting the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on-line-based education by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2;20(1):459-69. <https://doi.org/10.14400/JDC.2022.20.1.459>
25. Jang SE, Kim SY, Park NH.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4):448-58.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4.448>
26. Eun LK, Seo IS.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2;28(1):37-47.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27. Ko MS.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9;14(2):85-92. <https://doi.org/10.15715/kjhcom.2019.14.2.85>
28. Han SH. The effecting factors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12):353-63. <https://doi.org/10.21742/AJMAHS.2018.12.85>
29. Seo YC, Chae EJ, Lee HM, Kang JY, Kim ES, Lee SS, Shin SH. Influence of core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Job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2022;17(4):135-42. <https://doi.org/10.21097/ksw.2022.11.17.4.135>
30. Jang S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nursing students's nursing professionalism. Unpublished [dissertation]. Gimhae: Inje University. 2022.